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s of children's perceived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peer competence on children's happiness

김예슬¹ 이주연²

Ye Seul Kim¹ Joo-Yeon Lee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ve influences of senior elementary school children's communication level with their fathers and peer competence on their happines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0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attending elementary school in Jeollanam-do. They responded to the level of communication with their fathers, peer competence, and happiness. For the data,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First, there were som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a sub-factor of happiness an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s in open-type communication and problem-type communic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children's happiness was high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with their fathers and peer competence. Third, the factors having the greatest relative influence on overall happiness were in the order of peer competence, open-type communication, problem-type communication, and gender. The variables influencing and the order of relative influence differed according to sub-factors of happiness.

Conclusion/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peer competen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hildren's happi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nvergent programs that can improve communication with fathers, peer competence, and children's happiness are necessary.

key words children's happiness, communication with fathers, peer competence, relative influence

* 본 논문은 2022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전남대학교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생

²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e-mail : idscot@jnu.ac.kr)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행복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인간이 평생을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무엇이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는 주제이다(조성연 등, 2009). 행복감이라는 용어는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생활 만족, 삶의 질, 적응, 심리적 안녕 상태 등과 혼용되고 있으며, 단일의 명확한 정의로 합의되지 않고 있다(윤연정, 2019). 특히 행복감과 안녕감은 서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무방한 포괄적 개념이라는 점에서(채경선, 황현주, 2014), 본 연구에서는 유사개념으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행복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행복감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정의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하고 있는 Diener(1984)의 개념이다. 그는 주관적 안녕감을 자신의 삶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평가로 보고, 이들을 객관적인 외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경험과 내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내리는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Diener, 1984, 임미지, 문혁준, 2011에서 재인용).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21세기에 들어서며 Seligman과 Csikszentmihalyi (2000)의 긍정심리학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성인이나 15-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아동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은진, 2011). 아동기는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아동의 행복감 경험이 청소년을 거쳐 성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정은우, 2019)에서 성인이나 청소년 못지않게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도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인지 발달 수준에 근거할 때,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는 아동기에는 추상적인 상황이나 가치, 이념 등을 통해 느끼는 행복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매일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행복감의 주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아동은 인지적으로 최근에 누적된 사소한 경험들을 쉽게 회상하고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복감을 평가할 때 매일 매일 경험하는 사소한 일상을 평가 단위로 삼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백수현, 2008). 마찬가지로, 아동기는 이후의 발달 연령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족의 죽음, 결혼, 시험 합격 등을 경험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행복감의 접근에서도 추상적인 행복에 대한 접근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복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최혜영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을 아동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및 일상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으로 국내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정화(2005)와 강영하(2008)의 하위요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정화(2005)가 제안한 행복감 구성요소 중 가정환경은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함과 건강 및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며, 자기존중감은 자신의 성격 특성에 대한 만족도를, 능력은 학업이나 운동 및 생활면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대인관계는 믿을만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강영하(2008)의 행복감 구성요소 중 자기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능력 및 학습 활동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낙관주의는 일상생활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친구관계는 원만한 또래관계 여부, 그리고 가정환경은 가정의 분위기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바, 아동의 행복감 구성요소

로 일관되게 보고되는 자기존중감, 가족 및 또래 등과의 대인관계를 포함한 강영하(2008)의 구성 개념으로 행복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한국방정환재단의 2021년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자료에 의하면, ‘행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초등학교 44.8%가 가족·친구로 구성된 관계적 가치를 꼽았다(염유식, 성기호, 2021). 또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8년 아동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낮은 행복감의 원인으로 친구 관계에 대한 결핍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다(정경수, 2019). 이는 아동들이 가족관계 및 또래관계의 만족 정도로 행복감의 정도를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 및 또래관계에 연구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관계이다(황혜자, 최윤희, 2003). 부모와의 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되는데(김보미 등, 2019), Barnes와 Olson(1985)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공감, 경청,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로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유형이다.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모순된 내용, 이중속박,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로 자녀는 부모로부터 비난적 표현을 애정적 표현보다 더 많이 경험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조심하고 주저하게 된다(Barnes, Olson, 198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 이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격려와 수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감정을 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Demo et al., 1987, 이정선, 2013에서 재인용). 또한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동의 긍정적 삶의 만족도(고현선, 2014)에 영향을 미치며 낮은 외로움(김은경, 이진숙, 2010)과도 관계가 있다. 반면, 부모-자녀 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아동의 생활 만족과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배지숙, 2017) 아동의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조수진, 2009). 한편,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자극의 종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다르며, 어느 쪽의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Mckee & O'Brien, 1982).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비교할 때, 대개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인지발달 및 성취동기 영역에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한명숙, 2013).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관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기존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외에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독립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아동의 행복감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배보미, 2018; 안윤미, 2012; 이동주, 2012; 이진숙, 김은주, 2013; 황연덕, 이진숙, 2011). 또한 아버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에 까지 그 영향이 지속된다고 보고된다(조하영, 박성연, 2013). 이처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방식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행복감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관계적 변인으로 또래 관련 변인을 들 수 있다. 아동기는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또래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있어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권지숙, 2008). 또래관계와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것이 또래 유능성인데, 이는 또래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또래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그 안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말한다(박주희, 이은혜, 2001). 또래유능성과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또래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고(김정연, 정현주, 2008; 김춘희, 2002; 박정아, 2020; 소선숙, 2012; 정혜원, 조옥귀, 2011), 반대로 또래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정숙, 2002). 이처럼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재숙, 2002). 이에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에 있어 또래유능성을 함께 살펴보하고자 한다.

종합할 때, 아동의 행복감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또래유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황현주, 201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특히 아동의 사회적 중심이 가족에서 또래로 이동하는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만큼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과 또래관련 변인이 함께 작용할 뿐 아니라 그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변인보다는 또래변인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독립적으로 분석되었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또래유능성 변인을 함께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기존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의 하위요인들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또래유능성의 영향력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미흡하다. 행복감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정의 내릴 수 있다(남현주, 2012). 특히 아동의 행복감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구체적인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에서 기인하므로(강영하, 2008) 행복감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연구할 때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또래유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행복감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발달상으로 청소년기로 이행되는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중학교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학업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로 이해된다. 더욱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의 사회적 중심이 가족에서 또래로 이동하는 청소년기 초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가족변인 및 또래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일은 발달적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행복감은 단일요인의 영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이진숙, 김은주, 2013). 이러한 점에서 성별과 학년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역시 아동의 행복감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연구는 그 결과가 매우 다양하다. 즉, 성별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한태경, 2012)와 여아가 남아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강영하, 2008; 신승배, 2016; 조성연 등, 2009), 반대로 남아가 더 행복하다는 연구(김혜원, 홍미애, 2007; 김혜정, 2022) 등 비일관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성과는 달리,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은 학년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다는 연구결과(강하남, 2012; 박소연, 이흥직, 2013; 신승배, 2016)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아동의 행복감과 연령 및 학년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행복감 차이검정을 먼저 실시한 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변인을 상대적 영향력 분석 시 통제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요약할 때,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버지 의사소통 및 또래유능성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전체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행복감의 하위요인(자기존중감, 낙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남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 연령대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이 가능한 구체적 조작기 후기 단계에 해당하므로(Martorell et al., 2014), 어린 연령대의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에게 3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310부의 설문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아가 168명(54.2%), 여아 142명(45.8%)으로 남아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학년의 경우, 5학년 163명(52.6%), 6학년 147(47.4%)로 5학년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아버지 연령의 경우 40세 미만은 30명(9.7%), 40세 이상~45세 미만은 113명(36.5%), 45세 이상~50세 미만은 110명(35.5%), 50세 이상은 57명(18.4%)으로 40세 이상~45세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성별	남자	168(54.2)
	여자	142(45.8)
학년	5학년	163(52.6)
	6학년	147(47.4)
아버지 연령	40세 미만	30(9.7)
	40세 이상 ~ 45세 미만	113(36.5)
	45세 이상 ~ 50세 미만	110(35.5)
	50세 이상	57(18.4)

2. 측정도구

1)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은 강영하(2008)가 개발하고, 유선진(2011)이 일부 수정한 척도를 바탕으로 아동의 이해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몇 개 문항을 삭제한 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 2인 외 아동학 전공교수 1인에게 추가로 안면타당도 확인과정을 거쳤다. 최종 사용 문항은 자기존중감(6문항), 낙관주의(6문항), 친구관계(6문항), 가정환경(6문항)의 4가지 하위영역 총 24 문항으로 구성된다. 자기존중감에는 ‘나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가, 낙관주의에는 ‘나는 지금의 내 생활에 만족한다.’가, 친구관계에는 ‘친구들이 나를 잘 따른다.’가, 가정환경에는 ‘우리 집은 화목하다.’ 등이 포함된다. 응답 및 점수 부여 방식은 5점 척도로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강한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기존중감 .81, 낙관주의 .83, 친구관계 .87, 가정환경 .86, 전체행복감 .94 로 나타났다.

2)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en(1985)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를 민혜영(1990)이 번안하고, 이를 정현아(2004)가 아동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형 의사소통(10문항)과 문제형 의사소통(10문항)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개방적 의사소통에는 ‘나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께 생각을 말씀드린다.’가, 문제형 의사소통에는 ‘아버지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신다.’ 등이 포함된다. 응답은 4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의사소통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방형 .89, 문제형 .77 로 나타났다.

3) 또래유능성

아동의 또래유능성은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하고 윤연기(2010)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맞게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5문항), 친사회성(5문항), 주도성(5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사교성에는 ‘어떤 활동을 하든지 다른 친구들에

게 인기가 많다.’가, 친사회성에는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가, 주도성에는 ‘친구들과 놀이나 활동을 할 때 앞장서서 한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유능성의 전체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또래유능성 일부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성이 .70 이상으로 다소 높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될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응답 및 점수 부여 방식은 5점 척도로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섯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의 차이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 표 3에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존중감($t = 2.56,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남자($M = 3.47$)가 여자($M = 3.2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낙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 전체 행복감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N=310)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기존중감	남아	168	3.47	0.78	2.56*
	여아	142	3.25	0.77	
낙관주의	남아	168	3.77	0.85	1.96
	여아	142	3.57	0.87	
친구관계	남아	168	3.60	0.82	-0.05
	여아	142	3.60	0.76	
가정환경	남아	168	3.88	0.77	-0.50
	여아	142	3.92	0.68	
전체	남아	168	3.68	0.69	1.21
	여아	142	3.59	0.65	

* $p < .05$

학년 에 따른 차이는 전체 행복감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학년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 (N=310)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자기존중감	5학년	163	3.40	0.78	0.51
	6학년	147	3.35	0.78	
낙관주의	5학년	163	3.78	0.86	1.78
	6학년	147	3.59	0.87	
친구관계	5학년	163	3.60	0.82	-0.17
	6학년	147	3.61	0.75	
가정환경	5학년	163	3.96	0.75	1.55
	6학년	147	3.83	0.70	
전체	5학년	163	3.68	0.70	1.10
	6학년	147	3.59	0.64	

2.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1)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아버지와 의사소통, 또래유능성, 그리고 아동의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행복감과 다른 주요 독립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과는 $r = .40 \sim .64$ 정도의 정적 상관을,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r = -.20 \sim -.59$ 의 부적상관을, 그리고 또래유능성과는 $r = .47 \sim .82$ 의 정적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4.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의사소통	1. 개방형의사소통	1							
	2. 문제형의사소통	-.64***	1						
또래유능성	3. 또래유능성	.40***	-.29***	1					
	4. 자기존중감	.40***	-.29***	.67***	1				
행복감	5. 낙관주의	.50***	-.47***	.56***	.68***	1			
	6. 친구관계	.43***	-.35***	.82***	.68***	.67***	1		
	7. 가정환경	.64***	-.59***	.47***	.54***	.64***	.52***	1	
	8. 전체 행복감	.58***	-.50***	.75***	.86***	.89***	.85***	.79***	1

* $p < .05$, *** $p < .001$

2)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버지와 의사소통, 또래유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차이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학년

변인은 제외하고 아동의 성별 변인만을 상대적 영향력 분석 시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제변인인 아동의 성별을 1단계에 투입하고,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또래유능성을 3단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VIF계수를 산출한 결과 1.00~1.87로 10보다 작고, 공차한계는 .54~1.00로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DW계수도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관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또래유능성이 종속변인인 행복감 하위요인 중 친구관계와 .82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귀분석에서는 해당 하위요인을 제외한 자기존중감, 낙관주의, 가정환경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전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전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통제변인인 성별이 투입된 모형1의 설명력은 1%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이 투입된 모형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9.32, p<.001$) 행복감 변량의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 포함된 변인들 중, 개방적 의사소통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으며 문제형 의사소통, 그리고 아동의 성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성의 경우 모형1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의사소통 변인군이 추가된 모형2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유능성이 투입된 모형3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64.75, p<.001$), 이 때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모형2에 비해 32% 증가하여 총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유능성 변인의 순수설명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또래유능성($\beta=.62, p<.001$), 개방형 의사소통($\beta=.21, p<.001$), 문제형 의사소통($\beta=-.19, p<.001$), 성별($\beta=-.13, p<.00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유능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그리고 남아의 경우 전체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전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N=310)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성	-.07	-1.21	-.10	-2.10*	-.13	-3.98***
개방형 의사소통			.44	7.36***	.21	4.71***
문제형 의사소통			-.22	-3.73***	-.19	-4.61***
또래유능성					.62	17.45***
R^2	.01		.37		.68	
ΔR^2	.01		.36		.32	
F	1.47		59.32***		164.75***	

* $p<.05$, t; $p<.001$.

(2)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자기존중감 요인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

다. 성별이 통제된 상태에서 모형2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변인군을 투입한 결과, 해당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3.30, p<.001$), 모형1에 비해 17%의 설명량이 증가하여 총 19%의 설명량을 보였다. 모형2에 또래유능성이 추가된 모형3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8.49, p<.001$), 또래유능성의 추가설명량 32%가 더해져 독립변인들은 행복감 변량의 총 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인의 경우, 모형2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beta=.37, p<.001$)이 성별($\beta=-.16, p<.01$)보다 더 높은 상대적 영향력을 보였던 반면, 모형3에서는 또래유능성($\beta=.62, p<.001$), 성별($\beta=-.19, p<.001$), 개방형 의사소통($\beta=.14, p<.05$) 순으로 나타나 개방형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또래유능성 변인에 의해 상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전체 행복감 영향요인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또래유능성이 높아질수록, 남아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6.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N=310)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성	-.14	-2.56*	-.16	-3.11**	-.19	-4.82***
개방형 의사소통			.37	5.45***	.14	2.47*
문제형 의사소통			-.06	-.87	-.03	-.59
또래유능성					.62	14.12***
R^2	.02		.19		.51	
ΔR^2	.02		.17		.32	
<i>F</i>	6.53*		23.30***		78.49***	

* $p<.05$, ** $p<.01$, *** $p<.001$.

(3)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낙관주의 요인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낙관주의에 미치는 영향(표 7)의 경우, 통제변인에 아버지 의사소통을 추가한 모형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4.97, p<.001$), 의사소통 변인군의 추가설명량은 29%였다. 모형3의 경우 또래유능성이 투입됨에 따라 16%의 설명량이 추가되어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6%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6.03, p<.001$). 모형2에서 개별 변인의 영향력은 개방형 의사소통($\beta=.34, p<.001$), 문제형 의사소통($\beta=-.26, p<.001$), 성별($\beta=-.14, p<.01$)의 순이었다. 그러나 모형3에서의 영향력은 또래유능성($\beta=.44, p<.001$), 문제형 의사소통($\beta=-.24, p<.001$), 개방형 의사소통($\beta=.18, p<.01$), 성별($\beta=-.16, p<.001$) 순으로 나타나 또래유능성이 투입됨에 따라 개방형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모형3의 결과를 해석하면 또래유능성이 높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남아의 경우 낙관주의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낙관주의에 미치는 영향 (N=310)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성	-.11	-1.96	-.14	-2.83**	-.16	-3.77***
개방형 의사소통			.34	5.50***	.18	3.13**
문제형 의사소통			-.26	-4.11***	-.24	-4.32***
또래유능성					.44	9.49***
R^2	.01		.31		.46	
ΔR^2	.01		.29		.16	
F	3.83		44.97***		66.03***	

** $p < .01$, *** $p < .001$.

(4)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가정환경 요인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가정환경에 미치는 영향(표 8)의 경우, 아들의 성만 투입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여기에 아버지 의사소통 2가지 변인이 투입된 모형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88.02, p < .001$). 이 때 총 분산의 설명량은 46%였으며 개방형 의사소통이 더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또래유능성이 추가된 최종 투입모형의 경우, 총 51%의 설명량을 보였다($F = 80.24, p < .001$). 개별 변인이 상대적 영향력은 개방형 의사소통($\beta = .34, p < .001$), 문제형 의사소통($\beta = -.31, p < .001$), 또래유능성($\beta = .24, p < .001$) 순이었다. 이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또래유능성이 높아질수록 가정환경 점수가 높아지며,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또래유능성 순으로 가정환경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표 8.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가정환경에 미치는 영향 (N=310)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성	.03	.50	-.00	-.04	-.02	-.37
개방형 의사소통			.43	7.93***	.34	6.67***
문제형 의사소통			-.32	-5.78***	-.31	-5.85***
또래유능성					.24	5.57***
R^2	.00		.46		.51	
ΔR^2	.00		.46		.05	
F	.25		88.02***		80.24***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행복감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아동의 행복감 전체 및 행복감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존중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자기존중감의 차이를 조사한 강중훈(2000)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자기존중감 관련 행복감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남아에 비해 여아는 불안한 경향이 있어 남아 보다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진다는 연구결과(최영희 등, 2002)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행복감 차이의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는 행복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많은 기존 연구들(강하남, 2012; 박소연, 이홍직, 2013; 신승배, 2016)에서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보고된 바, 본 연구에서는 연령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5학년과 6학년의 2개 학년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함께 살펴볼 때, 연령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에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의 행복감 점수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의 전체 행복감과 각 하위요인에 대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또래유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행복감에 대한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또래유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또래유능성,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성별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군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변인군 36%의 설명량을 보였고, 다음 단계에서 투입된 또래유능성 변인이 32%의 설명량을 보였다. 이를 통해 두 변인군 모두 아동의 행복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 또래유능성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모형에서 아동의 행복감 전체 점수에 미치는 개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역시 또래유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에 관계의 중심이 가족이었다면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관계의 중심이 가족에서 또래로 옮겨 간다는 것(이진숙, 김은주, 2013)을 전제로 아동이 또래와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루고 유지하며 적합한 방식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역시 두 가지 유형 모두 전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상진, 2014). 특히 문제형 의사소통 보다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방형 의사소통이 행복감 형성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행복감 하위요인 중 자기존중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또래유능성, 성별, 개

방형 의사소통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행복감 분석결과와 같이 또래유능성이 자기존중감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있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하겠다. 반면, 전체 행복감과 달리 자기존중감에 대해 문제형 의사소통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순응지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이상택,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부모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또래 관계에서의 변화가 자신의 가치나 자기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장재숙, 2002)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존중감과 또래유능성 간의 밀접한 관련성과 연관이여 설명해볼 수도 있다. 즉, Dubois et al(1998)는 아동의 자기존중감 발달에 있어 또래관계가 부모관계의 영향보다 훨씬 크며, 이러한 이유로 또래관계는 아동기에 자기존중감을 이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기존중감과 관련된 행복감 역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방식 보다는 또래관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의사소통이 자기존중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낙관주의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2번째 투입된 아버지의 의사소통 변인군의 설명량이 3번째 투입된 또래유능성 변인보다 높았다.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또래유능성, 문제형 의사소통, 개방형 의사소통,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낙관주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또래유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관계를 잘 극복하는 것이 낙관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유슬기, 2011)로부터 그 영향력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이하게, 낙관주의 관련 행복감에서는 문제형 의사소통이 개방형 의사소통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학업으로 인한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되며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독립, 순종과 반항 등의 양가감정을 느끼는 시기이다. 사춘기를 겪으며 기존의 부모와 형성되어 왔던 관계의 유형들이 파괴되면서 의사소통 방식도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으로 전환되어 아동의 낙관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안윤미, 2012)는 이 시기 부정적 의사소통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인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은 도움을 요청하며 낙관적인 지지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지만, 아동은 가정의 제한된 환경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의사소통의 기술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의 부정적인 소통을 그대로 수용하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연구결과(심미경, 1986) 역시 낙관성에 대한 부정적 의사소통의 강한 영향력을 유추하게 한다. 이에 개방적 의사소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형 의사소통을 줄이는 것이 낙관주의 행복감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행복감 하위요인 중 가정환경 요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2단계 투입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변인군의 설명량이 4%로 매우 높았다. 3단계 투입된 또래유능성은 다른 행복감 하위요인에서의 설명량과는 달리 5%라는 다소 낮은 추가설명량을 보였다. 개별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또래유능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환경 관련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또래유능성이 아닌 개방형 의사소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가치를 가정 안에서 바로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조은경, 1992)로부터 그 영향력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가정환경에 대한 행복감은 또래유능성 보다는 가정 내 요인, 특히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아동이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이나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환경에 대한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방형 의사소통이 문제형 의사소통보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아동의 내적인 효과를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 결과(김연화, 201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아동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 및 생활에 대한 만족감인 행복감에 대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 때, 변인들의 영향력은 행복감의 하위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학교, 교육지원 공공서비스 등에 실제적인 제안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또래유능성은 가정환경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행복감의 하위요인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높았다. 이에 아동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일차적인 방법은 또래유능성 향상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부모와 교사는 또래유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학교 내에서 아동의 외현적인 부적응 행동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진행되는 개인 상담을 넘어서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또래관계에 관한 교내 집단상담프로그램도 아동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행복감 하위요인 중 가정환경 관련 행복감의 경우 아버지 의사소통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아버지는 아동과 대화할 때 수용적이며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낙관주의 행복감에서는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보다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안 했을 때 아동의 행복감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기관 등에서 개발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문제형 의사소통을 줄이는 대화기술 방법이나 양육기술을 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아동 및 부모교육 전문가를 통한 부모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개방형 의사소통을 늘리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할 뿐 아니라, 아버지-자녀와의 상호작용평가 및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아동의 행복감은 하위요인에 따라 영향요인의 종류 및 영향력의 정도가 달랐다. 이에, 기본적으로는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융합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요구되며, 이에 더불어 특정 하위 요인과 관련된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요인 간에 차별화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인식하는 행복감 역시 자기 자신, 가정생활, 친

구관계 등 구체적인 관계 및 환경 안에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행복이 아닌 각각의 구체적 관계 및 환경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차이를 이해하여 접근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행복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동일한 응답자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와 또래 환경 변인에 초점을 두고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횡단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또래유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즉, 아동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 및 생활에 대한 만족감인 행복감에 대해 아버지와 의사소통 및 또래유능성이 영향을 미침은 물론, 행복감의 하위요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 점에서 연구의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동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위 요인별로 보다 구체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하 (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21(2), 159-177.
- 강종훈 (2000).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하남 (2013). 아동·청소년의 행복감과 스트레스 관계 연구: 인간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현선 (2014). 부모와의 관계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회복탄력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지숙 (2008). 영재의 완벽주의 특성과 또래관계 성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미, 장경은, 오현미 (2019).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1), 57-73. <https://doi.org/10.14698/jkce.2019.15.01.057>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은경, 이진숙 (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성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3), 1-22.
- 김정연, 정현주 (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171-190.
- 김춘희 (2002). 또래수용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홍미혜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김혜정 (2022). 부모의 우울 유형에 따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4), 37-52. <https://doi.org/10.14698/jkce.2022.18.04.037>
- 남현주 (2012).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된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 (1990). Circumflex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 이홍직 (2013).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21(2), 73-84.
- 박정아 (2020).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또래지위, 친구관계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 (2001). 취학 전 유아용 또래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배보미 (2018).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행복감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지숙 (2017).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수현 (2008). 아동의 일상생활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대도시 초등학교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선숙 (2012).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및 학교적응에 대한 통합모형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정숙 (2002).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자아지각 및 사회기술과 심리적 안녕감. 경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신승배 (2016).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135-184. <https://doi.org/10.15818/ihss.2016.17.3.135>
- 심미경 (1986). 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윤미 (2012). 아동이 지각한부모-자녀간의사소통 유형과 낙관성 및 행복감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유식, 성기호 (2021). 2021 제12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1-0009-V1.0>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 유선진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행복감 향상과 우울성향 감소를 위한 감사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슬기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와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연기 (2010). 초등학생의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또래유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연정 (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와 모의 양육특성.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주 (2012). Satir 모델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어머니의 의사소통, 정서표현성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진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행복감과 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택 (2013). 중학생의 가족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관계. 한양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201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역량지각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김은주 (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https://doi.org/10.5934/kjhe.2013.22.5.433>
- 임미지, 문혁준 (2011). 아동이 지각한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8(2), 255-275.
- 장재숙 (2002). 아동의 친구와의 대인관계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수 (2019. 6. 10). 친구·가족과 놀 시간 부족...한국아동 '삶의 만족도' 6.6점 불과.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10000207>에서 2022년 12월 12일 인출
- 정은우 (2019).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아 (2004). 아동이 지각한 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스트레스 및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원, 조옥귀 (2011).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행복의 관계에서 몰입경험과 또래애착의 역할. **교육이론과 실천**, 21, 63-85.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 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조수진 (2009).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성향,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우울간의 관계. **통합치료 연구**, 1(1), 19-33.
- 조은경 (1992). 부모청소년간의 대인거리 심리적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하영, 박성연 (2013).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3), 59-74. <https://doi.org/10.5723/KJCS.2013.34.2.59>
- 채경선, 황현주 (201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효학연구**, 20, 159-190.
- 최영희, 박영애, 박인진, 신민섭 (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20(2), 203-214.
- 최혜영, 신혜영, 최미숙, 조성연 (2009). 한국 아동의 행복감 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11.
- 한명숙 (2013).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태경 (2012).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연덕, 이진숙 (2011).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역할. **아동학회지**, 33(1), 223-236. <https://doi.org/10.5723/KJCS.2012.33.1.223>
- 황현주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친구관계 및 행복감과의 관계.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혜자, 최윤화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 Barnes, H., & Olse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438-447. <https://doi.org/10.2307/1129732>
- Dubois, D. L., Bull, C. A., Sherman, M. D., & Roberts, M. (1998). Self-esteem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social-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5), 557-583.
- Martorell, G., Papalia, D. E., & Feldman, R. D. (2014). *A child's world: Infant through adolescence*. McGraw Hill.
- Mckee, L., & O'Brien, M. (1982). *The father figure*, Tavistock Publication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https://doi.org/10.1037/0003-066X.55.1.5>

논문투고: 22.06.15.
수정원고접수: 22.11.21.
최종게재결정: 22.11.28.